

'도내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일원에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자치도에서 주최하고, 익산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가자! 청년의 도전이 만나는 곳 청년창업 빌드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창업가 아이디어 제품 전시·판매 및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되었다.

9월 11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청년창업가 전북창업가관협의회 소속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대



11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24 제1회 청년창업 박람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 안태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미디어 퍼포먼스와 개막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이어서, 비니텍(주) 성도경 대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초특강에서 청년창업가와 예비 청년창업가에게 현실적인 조언으로 호평을 자아냈다.

청년창업박람회는 성공기업 CEO 특강 및 토크콘서트, 상담부스 운영(특허출원 법률, ESG지표 이노브즈, 마케팅, 회계, 수출, 취·창업 등) 창업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기업 MDXCS홈쇼핑 롯데쇼핑, 카카오, 농협 등) 및 바이어(BA 협회) 초청, 인플루언서 홍보 라이브커머스 및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등의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투자IR 및 투자상담(크립톤 로우파트너스, 소풍벤처스, 로간 등),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창업기업과 선배창업가 만남의 장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메이커스 체험 버스킹 공연 등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도내 청년 창업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부스 운영, 선배창업가와 네트워킹 시간이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박람회 참여한 청년 창업가

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수 청년 창업가의 제품과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선배창업가와 소통하고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도내 우수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청년창업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청년창업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박람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와 창업기업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선배창업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확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캠틱종합기술원, 고용부 장관상

혁신적인 교육으로 '베스트 오브 챔프 데이' 우수상 등 수상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 원장 노상훈)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포상 전수식 행사(광주광역시 벨리하우스)에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디지털융합, AI교육 등 우수한 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의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5일에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소에서 '베스트 오브 챔프 데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 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우수상)을 받았다.

캠틱은 한 해 5000명 이상을 교육하며 지역의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리텍 등 고용부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전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캠틱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의 직업능력 심사평가에서 2019년 '3년 우수훈련기관', 2023년 '5년 우수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 TIC(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로 출범한 캠틱은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의 금속, 정밀 등 뿌리산업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위해 설계(CAD), 경영, 기술 교육 등을 지원했다.

캠틱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본격적인 변신을 한 것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관 공개발령조사사업 '베스트 오브 챔프 데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 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우수상)을 받았다.

캠틱은 한 해 5000명 이상을 교육하며 지역의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리텍 등 고용부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전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의 직업능력 심사평가에서 2019년 '3년 우수훈련기관', 2023년 '5년 우수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김옥기 기자

농식품부 주최 전북 그린바이오 기업 현장 간담회

기업 소통의 장 마련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1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전북 그린바이오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성과 및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지역 그린바이오 거점연구기관들과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해 농식품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전북자치도, 익산시 등 관련 시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

원, 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아시아종묘, 유니크바이오텍, 선바이오 등 그린바이오 분야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성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추진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의 발표 내용에는 종자혁신 클러스터구축,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미생물 클러스터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동물용의약품임상시험센터 구축 등의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구축,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담겨져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참석한 기업들 중 종자 기업들은 종자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고 미생물 기업들은 미생물제제 사용 농가에 탄소절감 보상제도화 필요성, 식품기업들은 전입상,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확대, 동물용의약품 기업들은 인수공통 연구지원 보존 시스템 구축, 곤충 기업들은 연구개발 예산과 곤충생산 이력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오만호 기자



한전 군산지사, 추석 맞이

경로 식당 배식 봉사·후원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경로식당 배식 봉사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민모 지사장을 비롯한 한전 군산지사 직원 8명이 참여해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식사 보조를 지원했다. 또한, 임직원 월급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80만원을 후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추석 명절의 온기를 우리 고장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 LH·aT와 '함께프로젝트 취업컨설팅'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11일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 aT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홍준수)와 '함께프로젝트 취업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취업컨설팅은 취업난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참여 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회 △재직자와 취업상담 △신입사원의 합격 후기 공유 △모의면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전북지역본부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날개옷장'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취업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준비 청년들은 "취업컨설팅에 참여해 기관의 정보와 합격 후기를 직

접 듣고 모의면접도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날개옷장을 이용해 무료로 정장도 대여할 수 있어 하반기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후기를 남겼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번 취업컨설팅 개최를 시작으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은 지난 10일 원주군 상관면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NH해피하우스 제14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사회공헌단, 원주 상관면 사랑의 집고치기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은 지난 10일 원주군 상관면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NH해피하우스 제14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병철 단장, 이재욱 상관농협 조합장 김대호 원주군 지부장 등 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해 노후화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마음 한 뜻을 모았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생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 공사 및 주방벽지 교체 등을 지원해 해당 농가가 추석을 맞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병철 단장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작은 관심들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어진 봉사체제로 매달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NH해피하우스, 사회복지시설 기부, 배식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